

일본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변천*

The Historical Changes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Japanese School Libraries

김 소 영 (So-Yo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일본의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역사적 변천을 통해 형성된 최근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연구,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간행물, 학습지도요령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은 1940년대 후반 이후 도서관 이용지도의 도입기, 1950년대 후반 이후 지도방법의 모색기, 1980년대 이후 정보리터러시교육의 확립기, 2000년대 이후 탐구학습으로의 확대기를 거쳐 발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s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Japanese school libraries and in-depth research into recent educational situations. Related literature researches, the publication of School Library Association, The Courses of Study have been reviewed in this paper. As results of this research,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 Japanese school library has been developed from introductory period of the library use guidance after late 1940's, seek period of teaching method development after late 1950's, establishment period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fter 1980's, and enlargement period of inquiry based learning after 2000's.

키워드: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능력, 일본 학교도서관, 이용자교육, 학습방법지도, 탐구학습, 독서교육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formation Literacy, School Libraries in Japan,
User Education, Learn How to Learn, Inquiry Based Learning, Reading Education

*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전시킨 논문임.

**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 연구원(sykykim@gmail.com)

논문접수일자 : 2015년 11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12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 201-219,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4.20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iv).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군)별로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강화된 것과 더불어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에 제안된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은 필연적으로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자료와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요청된다.

즉 교내의 교수학습활동에 각종 정보원과 교육지원활동을 제공해 온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은 정보를 탐색, 분석, 이해, 적용, 평가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길러주고 학습의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들과 일맥상통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수의 연구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이 명확하게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이병기 2007; 송기호 2011; 박주현, 이명규 2014).

실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교교육 제도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도서관 교육의 변화 요인을 교육과정 개정에 국한 지을 수는 없으나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관련 단체의 대응 전략이 세워지고 실제 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사례는 우리나라 학교문화 및 도서관 환경과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가까워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보기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의 절대적 축적이 부족한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는 법제도의 표면적인 현황 조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일본 학교도서관 현장의 진취적인 실천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일본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전개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 왔

는지를 밝히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활용교육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써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련 단체의 활동을 검토하고 변화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별 양상을 알아본 후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최근 동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일본에서 발표된 학교도서관 교육에 대한 논문 및 저서,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의 간행물, 교육과정에 관한 정부간행물,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실태조사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보활용교육의 변천을 기술하기에 앞서 학교도서관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의 제도적 상황과 학교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확인하였다.

일본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의 특징에 따라 크게 네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에 연구결과는 각 시기별 특징을 검토한 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개과정을 조감하여 종합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정보활용교육'은 적용 범위, 외적인 맥락과 해석의 관점 등에 따라 정보이용교육, 도서관교육, 도서관활용수업, 정보문해 서비스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고, 상위 또는 유사 개념으로는 이용자 교육, 도서관 이용지도, 정보서비스가 있고, 광범하게는 독서교육 및 독서지도의 하위 또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권은경(2014, 158)은 독서, 도서관이용, 정보활용은 전체로서 도서관활용교육이라는 하나의 학습 스펙트럼을 형성하여 서로 분리되기 어려

운 부분이 있으나 모든 것을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정보활용교육은 독서교육과 구분되는 또 다른 전문 교육 영역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보교육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파악하고, 유사 개념 중에서 한국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보활용교육'이라고 통칭하였다. 일본의 상황을 설명할 때는 현지에 통용되는 '정보리터러시교육'으로 표현하였다.

1.3 선행연구

도서관 서비스의 보편적인 역사로써 정보활용교육의 출발은 이용자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만 나라별, 지역별, 도서관별로 그 전개 과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환(2011)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이용자교육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교육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 도서관계 전체로 확산된 도서관이용교습은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독립적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1970년대에는 대학과 학교도서관 참고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고 정보기술이 보급된 1980년대에는 정보활용능력의 제고에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학교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정보활용교육의 주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미국 학교도서관에서 이용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모습에 대한 연구로는 사서교사의 교수활동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연구한 Craver와 Callison의 연구가 있다.

Craver(1986)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서교사의 교수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및 기준,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사서교사들은 1950년 초기 열람실 감독자, 자료제공자와 같은 기본적인 교수활동에서 점차 적극적인 교수활동으로 발전하여 교과교수와 협력을 통한 수업 참여로 발전했다고 분석하였다. 1980년대에는 사서교사가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와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자료에 대한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협의의 정보활용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Callison(2009)은 1972년부터 2007년까지의 미국학교도서관협회를 분석하여 사서교사의 교수활동 경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35년간 학교도서관 교육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도서관 중심에서 정보 중심으로, 접근성 측정에서 평가성 측정으로 지도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교육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를 다룬 塩見昇의 『일본학교도서관사』(1986)와 194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까지를 다룬 전국학교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50년사』(2004)가 대표적이다.

후자는 학교도서관 대표단체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이며 현재 교육시스템이 정립된 1940년대 후반부터 이용지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정리한 논고가 실려 있다(山崎 2004). 이용지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1기는 문부성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1948년부터 약 10년 남짓한 기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육개혁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이 적극 도입되었고 이용지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교육실천이 각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2기는 1959년 즈음부터 약 20년 동안으로 문부성 및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학교도서관 운영 및 이용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각 지역에서 교재 등이 개발되었으나 이용지도는 좀처럼 정착하지 못했다.

제3기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로 학교교육의 개혁 논의가 진전되고 사회의 정보화와 더불어 이용지도에 대한 생각과 지도 내용이 크게 변화한 시기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이 학교교육 운영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고, 학교도서관 활동에도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교육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학습지도요령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습지도요령의 학교도서관 관련내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로는 渡邊(2003), 黒川(2004), 北嶋(2004), Kim(2011)의 연구가 있다.

渡邊(2003), 黒川(2004), 北嶋(2004)의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법적구속성이 강해진 1958년부터 1998년 개정을 대상으로 각 개정의 특징과 학교도서관 관련 기술을 추출하여 조사 검토하였다.

Kim(2011)의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시안으로 발표된 1947년부터 최근의 2008년 개정을 포함한 전 시기의 모든 교과 및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과정 개정

방침에 따라 크게 네시기로 특징적인 구분이 가능했으며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점차 발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교의 기반 시설로 제시되었으나 점차 교재센터, 독서센터, 학습정보센터로 역할이 확대되었고 학습정보센터로써 정보활용교육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학교도서관 대표 단체가 발간한 『학교도서관 50년사』와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역할 변화가 거의 동일하므로 두 연구에서 공통된 시기 구분을 바탕으로 각 시기의 전개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용교육이 정보활용교육으로 변천한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2000년대 초반 이후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완하였다.

2. 일본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 및 현황

일본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법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권은경(2004)과 이원숙(2011)의 연구에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위 연구에 포괄하지 못한 내용 및 최근 일어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법규 및 정책

일본에서 학교도서관은 1947년 학교교육법시

행규칙과 1953년 학교도서관법 제정 시에 학교도서관이 모든 학교의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인프라로 규정되었다.

학교도서관법에서 정보활용교육과 관련한 조항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4조의 4항에 “도서관 자료의 이용과 다른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하여 아동과 생도에게 지도를 실시한다”가 있다. 법률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도서관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뿐 아니라 평생학습을 위해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및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과 대응은 1990년대에 들어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1993년에 ‘학교도서관 도서 표준’이 설정되었고, 표준의 달성을 위해 같은 해 ‘학교도서관 도서 정비 신 5개년 계획’이 책정되었으며 매년 100억 엔을 넘는 비용이 지방교부세로 조치되었다. 이후 문부과학성은 학교도서관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1997년에는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어 2003년도에부터 12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사서교사¹⁾를 반드시 발령하도록 하였다.

1993년에는 ‘어린이와 책을 위한 의원 연맹’이 발족하였다. 그 후 2000년이 ‘어린이 독서의 해’가 되어 다음해에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 결정되었다. 2008년에는 제2차 계획이, 2013년에는 제3차 계획이 책정되었다. 2005년에는 ‘문자·활

1) 일본의 사서교사는 현지 명칭이 사서교유(司書教諭)이며 우리나라 사서교사와 달리 사서교사강습을 받은 일반교사가 교무분장 상의 직책으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임이 아닌 학급 또는 교과 업무와 겸임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한다.

자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관련 법안의 제정으로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독서 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던 것도 학교도서관 활용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독서 및 학교도서관이 교육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일본 국내외의 각종 학력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2000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독서 활동과 독해력의 특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ISA 2000에서는 하루 중 독서하는 시간, 읽는 책의 종류, 독서를 좋아하는 정도,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빈도와 독해력에서 참가국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독해력은 수학 리터러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반향을 일으켰다(國立教育政策研究所 編 2002).

이후 PISA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같은 다수의 국제 학력조사 결과에서도 언어 능력이나 독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시사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독서활동이나 도서관 이용과 학력 향상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9년 문부과학성에 의한 학력·학습상황조사 결과를 보면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이 정답률이 높고, 아침독서 등의 시간을 운영하는 학교가 주관식 문체의 무응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文部科學省國立教育政策研究所 2009, 52-54).

국제 및 국내 학력조사에서 주목 받고 있는 독해력, 국어력, 언어 능력과 같은 말에 관한 능력은 단순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텍스트를 이용하고 숙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이들 능력의 육성과 밀접한 독서활동도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한하지 않고, 폭넓은 종류의 글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 정책의 움직임은 1992년 이후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으나 2002년에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책정된 이후에는 '독서'라는 문맥 속에서 융합되고 종합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堀川 2014, 238).

어린이의 '독서', 즉 읽고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과 고도의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 각종 중에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국제 및 국내 학력조사의 결과와 맞물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 및 어린이 독서활동에 관한 동향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기대를 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학교도서관의 일반적 현황

일본 학교도서관의 전국적인 현황에 관한 조사는 문부과학성이 2008년부터 모든 학교에 대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대표적이다.

문부과학성의 2014년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

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인력, 장서, 독서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文部科學省兒童生徒課 2015).

사서교사를 반드시 발령하게 되어 있는 12학급 이상 학교의 사서교사 발령률은 소학교 98.8%, 중학교 96.7%, 고등학교 93.1%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는 교과 업무와 겸임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학급 이상의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있는 학교는 소학교 6.9%, 중학교 8.9%, 고등학교 7.1%이며,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주 당 시수는 소학교 0.8, 중학교 1.1, 고등학교 1.7 단위시간에 그치고 있다.

사서교사가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제도적 여건과 사서교사가 발령되지 않은 12학급 미만의 학교의 담당인력 문제 등으로 각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구책으로 학교사서를 배치해 왔다. 학교사서는 다양한 근무조건으로 채용되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올해 학교도서관법 개정(2015년 6월 24일)을 통해 법제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학교도서관 담당 직원을 일컫는 다양한 표현 중 대표격이었던 '학교사서'가 법행정 상의 용어로 정립 되었다.

통계조사에서 학교사서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는 소학교 54.3%, 중학교 53.0%, 고등학교 64.5%이다. 이 중 상근직 학교도서관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학교는 소학교 10.0%, 중학교 13.3%에 그치고 있고, 고등학교는 53.6%이다.

장서 현황으로는 장서 수, 학교도서관 도서 표준의 달성 정도, 백과사전 및 도감과 같은 공

통교재의 구비, 장서목록의 전산화, 컴퓨터 구비, 신문 구독 등에 관한 상황이 조사되고 있다. 장서 수는 한 학교당 소학교 8,389권, 중학교 10,258권, 고등학교는 23,639권을 소장하고 있다. 도서표준에 달성한 학교는 소학교 60.2%, 중학교 52.3%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도서 표준이 약 20년 전에 설정되어 표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담당인력의 배치 상황에 비추어 실제로는 불필요한 도서가 적시에 폐기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독서활동의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중학교에서 교내 모든 학생이 동시에 책을 읽는 일제독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학교 96.7%, 중학교 88.3%, 고등학교 42.9%). 다음으로 책 읽어주기(소학교 97.4%, 중학교 37.5%, 고등학교 14.4%), 필독도서 및 추천도서 코너의 설치(소학교 76.3%, 중학교 87.2%, 고등학교 93.7%)가 높은 실시율을 나타냈다.

기타 공공도서관과 연계 상황에 대해서는 소학교 79.9%, 중학교 52.4%, 고등학교 47.7%가 자료 공유 등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통계조사 결과로 보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비와 개선이 한층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일본 학교도서관 실태는 통계, 특히 평균치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면이 있다(中村 2013, 198). 예를 들어, 사립학교의 학교도서관은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여전히 개방하는 시간이 짧고, 전문 인력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학교도서관도 많은 실정으로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의 최근 동향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도서관 현황을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변천 과정의 시기 구분은 선행연구의 구분을 따라 네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는 조사 결과에 나타난 주요 특징에 따라 도입기, 모색기, 확립기, 확대기로 정리하였다.

3. 결 과

3.1 제1기 도입기: 이용지도의 도입

일본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은 통상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추진되어 왔다. 하나는 독서지도(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지도(교육)이다.

독서지도는 독서를 하고자 하는 의욕 고양 및 독해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독서에 의해 주체적인 자기 형성을 계획적으로 원조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의 안내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자립적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 환경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日本圖書館協會圖書館利用教育委員會 編 2001, 13).

학교도서관에서 이용교육은 문부성(현재 문부과학성)의 주도로 일찍부터 도서관 교육활동의 영역으로 실시되었다.

‘학교도서관 이용지도’가 ‘도서관교육’으로 소개되어 일본 학교도서관에 도입되고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이다. 문부성이 작성한 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인 『학교도서관 안내』에 ‘도서 및 도서관 이용법 지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尾原 1968, 24).

이후 문부성으로부터 학교도서관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계속적으로 간행되었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이 도모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서관 이용지도’ 혹은 ‘도서 및 도서관 이용지도’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당시 학교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도서관교육’이라는 표현보다 ‘이용지도’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냈기 때문이다(山本 1980, 10).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이 시기는 미국의 지도하에 민주주의로 정치적 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육 전반에 걸쳐 발본을 꺾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아동중심주의와 경험학습이 제창되어 학습지도요령 초판(1947)에는 자유연구, 사회과, 가정과 등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움직임 속에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학교도서관 운동과 미국의 영향이 결합되어 학교도서관계에도 개혁이 일어났다(中村 2009).

아동중심교육의 중시와 학교도서관 운동이 맞물려 1951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다수의 교과에서 학교도서관이 언급되었고,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학습지도법의 하나로써 학교도서관의 의의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전쟁 직후 교육환경은 열악하였고, 오랜 시간 학교도서관은 담당 인력의 배치를 포함한 제반 환경이 미비하여 일부 선구적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책과 이론이 현장의 실천을 앞서 나가게 되었다(野末 2010, 96).

3.2 제2기 모색기: 각종 가이드라인 발간 및 지도방법의 모색

제2기에는 1959년부터 약 20년 정도의 시기로 학교도서관 운영 및 이용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다수 간행되고 학습지도요령 상에 별도의 항목으로 이용지도가 언급되었으며 도서관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이용지도가 모색 되었다.

문부성은 『학교도서관 운영 안내』(1959), 『학교도서관에서 도서 이외의 자료 정리와 이용』(1960), 『소·중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이용의 안내』(1961), 『학교도서관의 관리와 운영』(1963), 『소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이용지도』(1970), 『중학교 학교도서관의 운영 안내』(1972) 등을 간행하여 이용지도의 지침서로 활용하게 하였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1965년에 이용지도 위원회를 발족시켜 기존의 '도서관교육커리큘럼'(1956)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약 6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전국대회의 이용지도분과회의 의견을 토대로 '학교도서관 이용지도 체계표'를 작성하였다. 1971년에는 지도 체계표의 해설서로 『학교도서관 이용지도의 계획과 방법』을 간행하였다.

1958년과 196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기초학력의 육성과 과학기술교육의 향상이 중시되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중시되었던 경험학습과 생활단원학습에서 탈피하여 학습내용의 계통성과 교육의 현대화를 추구한 시기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학교도서관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학습지도요령 상의 학교도서관 관련 기술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도서관 자료를 정선(精選)할 것이 요청되어 장서의 다양성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용지도는 개정 사상 처음으로 특별활동 영역에서 학급지도활동 중 한 가지로 명시되어 각 학교의 시행에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2기에 이용지도의 모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좀처럼 정착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학교도서관이 전쟁 후에 신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58년 계통학습을 중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된 이래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이 합몰되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학습지도에서 도서관자료는 요구되지 않았고 이용지도의 필요성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山崎 2004, 170).

또한 교사들의 이용지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실질적인 지도 시간을 얻기 어려웠던 교육과정 편성, 여전히 불충분했던 도서관의 정비 상태 등도 이용교육의 장애가 되었다(興侶 1969, 36).

3.3 제3기 확립기: 정보리터러시교육의 체계화

1980, 90년대에 이용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즉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의식하는 테마가 되었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검색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가 증가하여 다른 정보 수단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도서관을 파악한 후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정보사회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도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보 환경에서 정보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도서관 이용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

시할지가 검토되기 시작했다(野末 2003, 13).

정보리터러시는 국제 사회에서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거점이 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도서관이 시민의 읽고 쓰는 능력 향상에 이바지해 왔고, 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교육의 연장선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堀川, 中村 2003, 22).

일본의 교육과 관련한 공적인 문서에서는 1986년 '임시교육심의회 경과 개요' 제7장 '정보과에 대한 조치'에서 '정보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직후의 제2차 답신부터는 '정보리터러시'는 모습을 감추고 '정보활용능력 = 정보 및 정보 수단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해 가기 위한 개인의 기초적 자질'이라는 설명이 사용되었다.

이후 '정보활용능력'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의견은 담기지 않고 일본 학교교육계에는 '정보활용능력'이 교육 용어로 정착하게 된다. '정보리터러시'는 협의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활용에 역점을 둔 IT 리터러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도서관 분야의 종합적인 능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서관 분야에서는 정보활용능력보다 정보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三輪, 河西 2013, 136-137).

또한 문헌정보학에서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의 탐색 및 평가에 역점을 둔과 동시에 평생학습의 시점에서 단순히 목적하는 정보를 찾아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스로 학습해 나갈지를 중시하는 점이 특징이다(野口 2009, 21).

정보리터러시는 교과 공통의 능력이기 때문

에 학교에서는 범교과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과 통합적인 정보리터러시 육성을 위해서는 각 교과의 내용과 지도방법, 시간 편성 등을 조정하고, 이를 추진할 중심 역할이 필요하다. 이 중심 역할이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이 맡아야 하는 역할이다.

도서관이 정보리터러시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일정 정도 정착한 구미의 여러 나라와 그러한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보리터러시교육 지원 체제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堀川, 中村 2003, 138-139).

일본의 경우에도 2장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별 도서관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과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이해도 차이 등으로 인해 정보리터러시교육을 위한 교내 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한 곳부터 시도조차 어려운 학교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학습지도요령의 전면개정은 1977년과 1989년에 이루어졌다. 고도경제성장은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과도한 교육의 현대화는 심각한 학교문제를 발생시켜 연간수업시수와 교육내용이 대폭 삭감되었다. 줄어든 시간을 활용하여 각 학교가 특색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신설되었다.

이 시기 개정에서 학교도서관 관련내용은 총칙, 국어과, 특별활동에서 나타난다. 1989년 개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이용과 더불어 시청각 교재와 교육기기를 활용한 정보의 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국어과의 경우에는 독서지도에 편향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한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배우는 방법', '학습방법'(學び方, Learn How to Learn)의

지도라는 표현 아래서 이용지도를 확대해 나갔다. 이용지도를 통해 단순히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자세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를 받아들인 전국도서관협의회는 1992년 ‘자료·정보를 활용하는 학습방법의 지도(이용지도) 체계표’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이용지도와 연계한다는 점을 명칭에 기재하고, 학생들이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서 학습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지도 내용을 학년에 맞추어 계통적으로 제시하였다.

1990년 후반에 들어서는 사회 변화와 교육 현황에 따른 ‘종합적인 학습시간’ 도입, 정보기기의 발달, 저작권 및 개인 정보에의 대응 등의 측면에서 걸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전문위원회를 마련하여 체계표의 개정에 착수하고 2004년에는 ‘정보·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방법의 지도 체계표’를, 2008년에는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2004년 체계표에는 학습활동을 전면에 내세워 정보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도 영역은 I 학습과 정보·미디어, II 학습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의 이용방법, III 정보의 활용 방법, IV 학습결과의 정리법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소학교 저학년부터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발달 단계에 맞추어 아동생도 스스로가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과제를 해결하여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도 내용을 계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4년 발표된 소학교의 지도체계표는 <표

1>과 같다(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2008, 46-47).

3.4 제4기 확대기: 탐구학습의 전개

최근 정보활용교육은 ‘조사학습(調べ学習)’, ‘탐구학습(探究型學習, 探究學習)’ 등과의 관련하여 적극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다. 조사학습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에 의해 어떤 과제나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工藤 2002, 140), 또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으로써 어린이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해결을 위해서 학습계획을 세우고,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해결을 도모해가는 학습활동의 형태’를 가리킨다(圖書館用語辭典編集委員會 編 2004, 251).

즉 학습과정 안에 조사 활동이 포함되어 문헌자료가 조사대상이 될 경우 학교도서관은 자료를 제공하고, 찾아보는 방법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폭넓은 자료와 교재의 정비, 정리 및 배가의 효율성 제고, 검색 도구의 정비 및 참고자료 작성, 참고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조사학습’이라는 말은 엄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탐구학습을 통해 교육방법을 체계화하여 방법론을 확립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三輪, 河西 2013, 135-141).

제3기에는 정보활용교육 내용을 확립하였으나 교육과정상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적용 내용에 있어서도 단발적인 조사활동, 자료 검색을 위한 단순한 스킬 위주의 지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표 1〉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학습방법의 지도 체계표(소학교)

구분	I. 학습과 정보·미디어	II. 학습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의 이용방법	III. 정보의 활용 방법	IV. 학습결과와 정리법
소학교 저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가진다. · 학습 테마의 선택 · 정보와 미디어의 이용법을 안다. · 학교도서관의 규칙 · 학습문고의 규칙 · 도서 다루는 방법 · 컴퓨터 이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 · 라벨과 배치 · 참고서비스 · 과제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한다. · 도감 등의 도서자료 · 게시, 전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수집한다. · 각종 미디어의 활용 · 인적정보원의 활용 ·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 · 발췌하는 방법 · 그림을 이용한 기록 방법 · 알게 된 것을 적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정보의 정리 · 감상을 적는 방법 · 그림과 문장 정리법 · 학습한 내용을 발표한다. · 전시, 게시를 통해 발표 · 그림연극, 종이인형극으로 발표 ·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조사방법 · 정리방법 · 상호평가
소학교 중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안다. · 학습테마의 선택 · 조사방법의 선택 · 정보와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 도서 · 시청각미디어 · 전자미디어 · 인적정보원 · 정보와 미디어의 이용법을 안다. · 학교도서관, 학습문고의 규칙 및 이용법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 도서 다루는 법 · 네트워크 이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 · 분류 방법과 배치 · 청구기호와 배가 · 컴퓨터 목록 · 참고서비스 · 다른 기관을 이용한다. · 공공도서관 · 각종 시설 · 과제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한다. · 국어사전 지도 등의 도서자료 · 파일 자료 · 게시, 전시 자료 · 시청각미디어 · 전자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수집한다. · 각종 미디어의 활용 · 인적정보원의 활용 ·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 · 발췌하는 방법 · 스크랩, 파일 만드는 방법 · 요점 정리법 · 표와 그림 만드는 방법 · 노트 정리법 · AV기기 등을 이용한 기록 방법 ·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다. · 목적에 따른 정보의 선택 · 이용 상의 유의점을 안다. · 인터넷 · 저작권 · 정보윤리 ·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정보의 취사선택, 정리 ·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 · 그림과 문장을 정리하는 방법 · 그림과 표를 삽입하는 방법 · 사진과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 · 자료 목록의 작성 · 학습한 내용을 발표한다. · 전시, 게시를 통해 발표 · 그림연극, 종이인형극으로 발표 · 연극, 실연으로 발표 · OHP, OHC를 이용한 발표 ·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미디어 이용방법 · 조사방법 · 정리방법 · 발표방법 · 상호평가
소학교 고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계획을 수립한다. · 학습테마의 결정 · 조사방법의 결정 · 정보와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 도서, 신문, 잡지 · 시청각미디어 · 전자미디어 · 인적정보원 · 정보와 미디어의 이용법을 안다. · 학교도서관, 학습문고의 규칙과 이용법 · 공공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서비스 · 도서 다루는 방법 · 네트워크 이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 · 분류 방법과 배치 · 청구기호와 배가 · 카드 목록 · 컴퓨터 목록 · 참고서비스 · 다른 기관을 이용한다. · 공공도서관 · 각종 시설 · 과제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한다. · 한자사전, 사전, 연감 등의 도서자료 · 신문, 잡지 · 파일 자료 · 게시, 전시자료 · 시청각미디어 · 전자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수집한다. · 각종 미디어의 활용 · 인적정보원의 활용 ·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 · 발췌하는 방법 · 스크랩, 파일 만드는 방법 · 요점 정리법 · 표와 그림 만드는 방법 · 노트 정리법 · 기록카드 만드는 방법 · 자작 자료의 작성법 · AV기기 등을 이용한 기록 방법 · 컴퓨터에 기록하는 방법 · 정보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 복수 정보에 대한 비교, 평가 · 이용 상의 유의점을 안다. · 인터넷 · 저작권 · 정보윤리 ·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 정보의 취사선택, 정리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 그림과 문장을 정리하는 방법 · 그림과 표를 삽입하는 방법 · 사진, 영상,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 ·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방법 · 자료 목록의 작성 · 학습한 내용을 발표한다. · 전시, 게시를 통해 발표 · 그림연극, 종이인형극으로 발표 · 연극, 실연으로 발표 · 녹음, 비디오, OHP, OHC를 이용한 발표 ·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미디어 이용방법 · 조사방법 · 정리방법 · 발표방법 · 상호평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러 차시에 걸쳐 학생 스스로 과제를 완성하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중고등 학생이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특화된 커리큘럼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정보활용교육이나 조사학습과 구별되는 '탐구학습'으로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을 확대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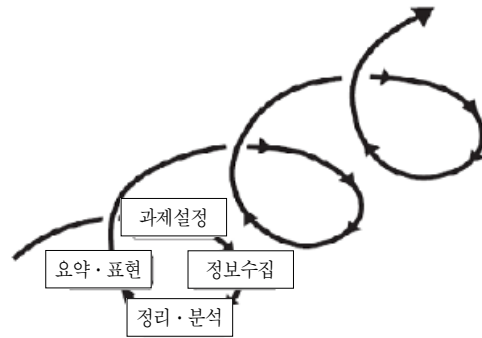
정보활용교육이 탐구학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탐구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국제 학력평가에서 제시한 '독서력(Reading Literacy)'과 북미 학교도서관계에서 추진하는 '탐구기반학습(Inquiry Based Learning)'을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1998년과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기치로 학습에서 습득, 활용, 탐구 활동을 중시하였다.

이 개정에서 학교도서관은 사회과와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국어과에서는 문학중심의 독서나 독해 지도의 편중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독서지도를 위한 곳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의 습득과 습득한 기본과 기초를 활용하는 학습활동은 교과에서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는 체험 학습을 배려하면서 탐구적인 학습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탐구적인 학습이란 문제해결 활동이 발전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습활동을 이른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과제설정 → 정보수집 → 정리와 분석 → 요약과 표현의 학습활동을 발전적으로 반복해 가는 학습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文部科學省 2008, 12).



<그림 1> 종합적인 학습시간에서 탐구학습의 연속적인 과정

이러한 탐구학습의 과정은 “바로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연구해온 정보리터러시를 습득하는 프로세스 모델이다”라고도 해석되어(堀川 2012, 4)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의 접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장의 관련 정책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교육계에 PISA가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특히 PISA형 독해력은 정보리터러시와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PISA형 독해력은 주어진 텍스트의 상세한 독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주장의 신뢰성, 데이터의 정확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읽는 능력이며 다른 자료에서 정보를 발견하여 비교해서 고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PISA형 독해력과 정보활용능력을 별개로 파악하지 않고 학생들의 평생 학습을 위한 기초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강하게 인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金澤 2007, 16).

또한 PISA형 독해력은 독서교육의 측면에서

도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일본에서는 Reading Literacy가 '독해력'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읽는 것,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일상적인 독서생활 모두가 Reading을 가리키기 때문에 독서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독서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독서교육이라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독서'는 문예작품을 통독하는 것, 읽기 학습과 독해 지도는 국어과가 전담하는 것이라는 뿌리 깊은 통념에서 벗어나 학교교육 안에서 계획적인 지도와 독서 후의 활동 및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다(米谷 2011).

학교도서관 교육에 있어서는 그 동안 독서지도와 이용지도를 구분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파악하고 운영한 경향이 있었으나 PISA형 독해력의 강조로 인해 종합적인 지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탐구학습 추진에 참고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북미 모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Kuhlthau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 행동 모델을 구축하고 정보리터러시교육의 이론을 형성한 것을 토대로 2000년대에 들어서 '안내된 탐구학습(Guided Inquiry)'이라고 제시한 모델이다(Kuhlthau 2007). 두 번째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한 '탐구의 초점(Focus of Inquiry)'이다(Alberta 2004). 두 모델 모두 학습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선형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서교사와 다른 교사의 협력이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탐구학습은 최근 부상한 학습유형으로 그 정의나 지도 방법 등에 관해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탐구학습은 교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학습방법이면서 교과 통합을 통한 복합적

〈표 2〉 일본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변천

구분	시기	특징
제1기 도입기 도서관 이용지도의 도입	1948년~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학습, 아동중심주의와 같은 교육사조를 토대로 한 국가 교육과정 수립 • 일본 국내 도서관 운동과 미국의 영향으로 학교도서관 개혁 • 학습지도요령에 학교도서관 관련내용이 빈번히 기재됨 • 중앙정부(문부성) 주도로 이용지도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 현장의 기반 미비로 확산 미흡
제2기 모색기 각종 가이드라인 발간 및 지도방법의 모색	1950년대 후반~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통학습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으로 학교도서관 침체기 • 정부 및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 간행 • 학습지도요령에서 학교도서관 관련내용이 축소된 가운데 이용지도가 명시됨 • 효과적인 이용지도의 모색 지속
제3기 확립기 정보리터러시교육의 체계화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교육을 기치로 한 교육 개혁과 사회의 정보화로 인해 이용지도의 전환점 형성 • 학습지도요령의 총칙, 국어과, 특별활동에 학교도서관 관련내용이 기술됨 • 1986년 교육관련 공공문서에 '정보리터러시'가 첫 등장 • 정보활용능력이 협소한 의미의 IT활용능력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도서관계에서는 '정보리터러시'가 통용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지도가 정보리터러시교육, 학습방법의 지도를 포괄하여 체계화됨 •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1992년, 2004년 학습방법 지도에 관한 체계표 발표 • 학교도서관 및 어린이 독서활동 진흥과 관련한 법규 정비 및 정책 추진
제4기 확대기 탐구학습의 전개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조사학습의 실천적 전통 계승 • 개정 교육과정에서 '살아가는 힘'의 육성 중시로 탐구적인 학습을 강조 • 학습지도요령에 사회과, 종합적인 학습시간에도 학교도서관 활용을 명시 • 국내외 학력평가 결과에서 독서의 중요성 대두, 탐구학습을 중시하는 국제 동향

이고 종합적인 학습을 전제로 하고 정보활용교육과 독서교육의 교차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활용교육의 발전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보활용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일본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알아보고, 특징에 따른 시기 구분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네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제1기는 1940년대 후반부터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도서관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1948년 문부성의 가이드라인 발행과 함께 '도서관 이용지도'로 정착된 교수활동이 정보활용교육의 시초가 되었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로 계통학습을 중시하는 교육방식으로 인해 학교도서관의 침체기가 있었던 시기이다. 발전의 정체 속에서도 각종 가이드라인 및 교재 발간을 통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모색되었다.

제3기는 1980~90년대로 여유교육을 내세운

교육개혁의 움직임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이용교육이 '정보리터러시교육'으로 확장하여 발전하였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1992년 '학습방법 지도'의 일환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체계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도서관 및 어린이 독서활동 진흥과 관련한 제도가 대거 마련되었다.

제4기는 2000년대 이후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국제 동향, 학교도서관의 축적된 전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탐구학습'으로 발전 전개되고 있다.

즉 정보활용교육은 이용지도의 연장선에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장, 발전시키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중심 개념으로 전개 과정을 정리하였으나 이용지도의 발달 과정, 탐구학습의 등장 배경과 같은 관점에서도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탐구학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노진영 외 2009),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김은정, 송기호 2015)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백화현 2015) 등이 사례로 보고되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전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일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학교 현장의 실천에 대한 조사분석,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후속연구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별책1]).
- 권은경. 2004.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과 사서교사제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95-118.
- 권은경. 2014.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의 현상에 대한 분석 연구 - 연구학교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139-164.
- 김은정, 송기호. 2015.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5-23.
- 노진영, 변우열, 이병기. 2009.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에 의한 탐구수업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471-492.
- 박주현, 이명규. 2014. 국내 학교도서관교육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99-328.
- 백화현. 2015. 자유학기제와 학교도서관. 『나비』, 2015년 10월 26일.
- 송기호. 2011.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범 교육과정으로서의 정보 활용 능력 위상 강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29-50.
- 이병기. 2007.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443-462.
- 이원숙. 2011. 일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거시적 환경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111-136.
- 이제환. 2011.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3-27.
- 정진수. 2014. 국내 사서교사 교수활동의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153-171.
- 工藤 文三. 2002. 調べ学習. 『現代學校教育大事典 第4卷』, 安彦忠彦 編, pp. 140-141. 東京: ぎょうせい.
- 國立教育政策研究所 編. 2002. 『生きるための知識と技能: OECD生徒の學習到達度調査(PISA) 2000年調査國際結果報告書』. 東京: ぎょうせい.
- 堀川 照代. 2012. 學校圖書館を活用した教育/學習の意義. 『明治大學圖書館情報學研究會紀要』, (3): 2-11.
- 堀川 照代. 2014. 學校圖書館と教育課程の展開. 『兒童サービス論』, 堀川 照代 編, pp. 229-232.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堀川 照代, 中村 百合子. 2003. 『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學校圖書館』. 東京: 東京電機大學出版局.
- 金澤 みどり. 2007. PISA型讀解力と情報活用能力の育成. 『學校圖書館』, (680): 15-17.

- 圖書館用語辭典編集委員會 編. 2004. 『最新圖書館用語大辭典』. 東京: 柏書房.
- 渡邊 重夫. 2003. 『司書教諭のための學校經營と學校圖書館』. 東京: 學文社.
- 文部科學省. 2008.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総合的な學習の時間編』. 東京: 東洋館出版.
- 文部科學省國立教育政策研究所. 2009. 『平成21年度全國學力・學習狀況調査【小學校】報告書』. 東京: 文部科學省國立教育政策研究所.
- 文部科學省兒童生徒課. 2015. 『平成26年度「學校圖書館の現狀に關する調査」結果について』. 東京: 文部科學省.
- 尾原 淳夫. 1968. 教育課程の改定と學校圖書館の志向. 『圖書館界』, 20(1): 23-26.
- 米谷 優子. 2011. 日本における讀書教育と讀書推進策: 情報リテラシー教育との關連から. 『園田學園女子大學論文集』, (45): 19-39.
- 北嶋 武彦. 2004. 第二部分野・事項にみる學校圖書館の五〇年 學校圖書館の行政. 『學校圖書館五〇年史』,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學校圖書館五〇年史』編集委員會 編. pp. 201-211.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山崎 哲男. 2004. 第二部分野・事項にみる學校圖書館の五〇年史 學校圖書館の利用指導. 『學校圖書館五〇年史』,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學校圖書館五十年史』編集委員會 編. pp. 162-173.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山本 徳夫. 1980. 現代教育と學校圖書館: 教育課程における學校圖書館の認識. 『圖書館學[西日本圖書館學會]』, (37): 8-13.
- 三輪 眞木子, 河西 由美子. 2013. 情報利用者と利用行動. 『圖書館情報學基礎』, 根本 彰 編. pp. 95-151.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野口 久美子. 2009. 情報リテラシー育成における讀書指導の位置づけ: 兩者の關連性に關する一考察. 『圖書館綜合研究』, (8): 21-32.
- 野末 俊比古. 2003. 圖書館利用教育とは何か. 『圖書館利用教育ハンドブック: 大學圖書館版』, 日本圖書館協會圖書館利用教育委員會 編. pp. 10-13.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野末 俊比古. 2010. 圖書館サービス 利用教育. 『圖書館ハンドブック, 第6版補訂版』, 日本圖書館協會圖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 編. pp. 92-97.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日本圖書館協會圖書館利用教育委員會 編. 2001. 『圖書館利用教育ガイドライン合冊版: 圖書館における情報リテラシー支援サービスのために』.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編. 2008. 『情報を學習につなぐ: 情報・メディアを活用する學び方の指導体系表解説』.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 中村 百合子. 2009. 『占領下日本の學校圖書館改革: アメリカの學校圖書館の受容』.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社.
- 中村 百合子. 2013. 學校における情報資源經營. 『情報資源の社會制度と經營』, 根本 彰 編. pp. 192-214.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黒川 雅子. 2004. 第3章學校教育と學校圖書館の機能. 『教育改革の中の學校圖書館: 生きる力・情報化・開かれた學校』, 坂田 仰 編. p. 33-47. 東京: 八千代出版.

興侶 照. 1969. 新學習指導要領における利用指導. 『學校圖書館』, (228): 36-38.

Alberta. Alberta Learning. Learning and Teaching Resources Branch. 2004. *Focus on Inquiry: A Teacher's Guide to Implementing Inquiry-Based Learning*. Edmonton, AB, Canada: Alberta Learning.

Callison, Daniel. 2009. "Instructional Trends from AASL Journals: 1972-2007--Part 1: From Teacher-Centered to Student-Centered." *School Library Media Activities Monthly*, 25(8): 22-26.

Craver, Kathleen. 1986. "The Changing Instructional Role of the High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1950-84: A Survey of Professional Literature, Standards, and Research Studie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14(4).

Kim, So-Young. 2011. "School Libraries as Old but New Support for Education in Japan: A Review of Japan's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s." *Libri*, 61(2): 143-153.

Kuhlthau, Carol C., Leslie K. Maniotes and Ann K. Caspari. 2007. *Guided Inquiry: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Greenwood Publishing Grou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 Jin Soo. 2014. "A Study on the Levels of the Instructional Activities by Korean Teacher-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153-171.

Kim, Eun-jung and Gi-Ho Song. 2015. "The effects of Creative Writing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5-23.

Kwon, Eun-Kyung. 2004. "The Amend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y Law and The School Librarianship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95-118.

Kwon, Eun-Kyung.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search Reports of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5(4): 139-164.
- Lee, Beyeong-Ki. 2007.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nd Library Assisted Instruction Considering National Level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38(1): 443-462.
- Lee, Jae-Whoan. 2011. "User Education in Korean Libraries: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1): 3-27.
- Lee, Won-Sook. 2011. "A Study for Macro-Environ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4): 111-136.
- Ministry of Education, Korea. 2012. *General Guidelin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Park, Ju-Hyeon and Myoung-Gyu Lee. 2014. "Political Issue and Problem of School Library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299-328.
- Ro, Jin-Young, Woo-Yeoul Byun, and Byeong-Ki Lee. 2009. "A Study on the Design of Inquiry Instruction Model by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0(1): 471-492.
- Song, Gi-Ho. 2011. "Altern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Information Literacy as Cross Curricula under the National Curriculum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2): 29-50.

